김일성-김정일주의기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105(2016)년

차 례

총　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활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이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였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혁명학설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거대한 진리의 힘으로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았으며 5대륙에 파급되고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전세계에 조직되여 활발히 움직이고 세계의 수많은 정당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따라배우고있다.

이 도서가 끝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가운데서 기본알맹이들을 소개함으로써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진보적인류가 자주사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자주적인 현시대 흐름을 추동하는 힘이 되기 바란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특징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자기의 고유한 구성체계로 하고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라는것은 그것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출발점, 기초를 이루면서 내용과 구성체계전반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알맹이로 되는 사상이라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방법론과 사람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옳바로 전개하고 체계화할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성부분들인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을 출발점, 기초로 하여 전개된것으로 하여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 령도방법으로 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내용 특히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에는 선군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주체사상에는 사람, 인민대중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강력한 총대로만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다는 선군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 선군정치리론과 전략전술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뿐만아니라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선군시대 당과 수령의 령도는 선군혁명령도이며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선군혁명령도체계, 선군령도예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구성에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이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폭넓고 심오하면서도 론리정연한 해답을 줄수 있게 구성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에게 가장 옳바른 세계관을 안겨주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전략전술과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묘술을 밝혀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전일적이고 완벽한 구성체계를 이루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고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근본리념,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혁명사상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면 백전백승하지만 인민대중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전백패한다는 원리가 집대성되여있는 사상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2.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자주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그것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과정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과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주와 존엄을 위한 인민대중의 력사적투쟁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성스러운 혁명활동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은 해당한 력사적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다.

주체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주체시대의 근본특징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라는데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견해와 관점을 주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새로운 혁명리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혁명적령도방법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혁명사상, 지도사상의 창시는 조선혁명실천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에서는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간고성, 복잡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혁명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조선에서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생겨난 사대주의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구속하여왔다. 그것은 조선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고 나라를 망국에로 이끌어간 주되는 사상적독소로 되였으며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민족해방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조선혁명은 강대한 일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였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혁명의 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혁명사상의 창시가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실천속에서 새로운 혁명의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본질적약점은 상층부의 몇몇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빈말공부만 하면서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은것이며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남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약점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는 두가지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하나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다른 하나는 혁명은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는 두가지 진리와 함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벌써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아버님으로부터 지원의 숭고한 뜻과 함께 두자루의 권총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였으며 무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굳은 각오를 가지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에는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무력항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투쟁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자면 강력한 총대부터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야 하며 무장한 강

도와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는 두가지 진리와 선군사상의 기초로 되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발견하신데 기초하여 주체 19(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무장투쟁로선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이를 일반화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가장 완벽하게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그 특징과 력사적지위 등 **김일성**주의를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를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

로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오한 원리와 명제들로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새로운 명제와 원리들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이에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하고계신다.

또 한분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 강국건설과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해나가게 되였다.

2)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의 기본요인

혁명사상은 오직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심화발전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위인적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창시되고 심화발

전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인적풍모를 그대로 닮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실수 있은 근본원천이다.

이민위천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숭고한 정신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친근한 스승이였고 온넋과 열정을 다 바쳐 떠받들어야 할 하늘이였다. 자신을 인민의 평범한 아들로 여기시며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을 언제나 인민의 대하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심화발전시키실수 있은 근본요인이다.

혁명의 령도자가 자기의 사명에 맞게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순결하게 옹호고수하시고 발전하는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주체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것으로 하여 두분의 존함을 모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발전하는 시대와 우리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켜나가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적 예지는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원대하고 심오하다. 이러한 원대하고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고계시였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은 더 말할것도 없고 동서방의 사상과 문화, 력사에 완전히 정통하실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류의 모든 진보적인 사상리론적유산들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창시하고 심화발전시키실수 있었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력사적지위

혁명사상이 차지하는 력사적지위는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이 얼마나 새롭고 완성된것이며 또 어떤 시대를 대표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특출한 력사적지위와 백승의 위력이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선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완성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

롭게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사상이 담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는 완성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비롯하여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모든 원리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뿐만아니라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리론 등 혁명리론이 담아야 할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있으며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원칙, 혁명적령도체계와 령도예술에 이르기까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선군사상과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밝힘으로써 현시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현시대와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오늘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지도사상, 현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과 전략전술,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 그 건설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고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혁명적령

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고있다. 특히 주체혁명의 새시대인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현시대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미래의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비롯하여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완성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다 밝혀주고있다.

제1편. 주 체 사 상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해명의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데 주체사상의혁명적본질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제1장.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주체사상에서 초석을 이루는 원리이다.

주체사상의 모든 체계와 내용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그것으로 관통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람의 본질적특성,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힌 원리를 담고있다.

제1절.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근본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주위세계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으로서 주위세계에 종속되여 사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에 관한 문제는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사람의 활동이 주동적인 작용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철학의 사명에 맞게 처음으로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철학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줌으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관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으며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척된다. 그런것만큼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자면 철학의 근본문제가 반드시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로 되여야 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자주시대는 사람,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새로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가 밝혀짐으로써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문

제에 해답을 주는 원리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세계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문제에 해답을 주는 원리이다.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주위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켜나가는 존재라는것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자기자신이 결정한다는것이다.

사람은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발전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가운데서 사람의 주동적작용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의 운명개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가운데서 사람자신의 역할이 결정적작용을 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현실세계의 근본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조발전되여나가는 현실세계의 본질적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제2절. 사람의 본질적특성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라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적존재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자주라는 말은 문자그대로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의 성질이며 자연과 사회를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려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은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자주적활동을 하는데서 표현된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는것은 자주성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사회적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의미한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생활은 온갖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생활이며 그러한 생활만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람다운 생활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잃게 되면 사회적예속과 구속을 받으면서 남에게 얽매인 노예적생활을 하게 되며 그런 생활은 동물의 생활이나 마찬가지이다.

창조성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창조성은 주위세계에 목적의식적으로 대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만

들어내는 사람의 성질이며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창조성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창조적활동을 하는데서 표현된다.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의식성은 의식을 가지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으로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고 조절통제한다.

사람의 의식은 크게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갈라볼수 있다.

사상의식은 현실에 대한 립장, 태도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다.

지식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의식이다.

의식에서 기본은 사상의식이다.

물론 지식도 사람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의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지식이 아니라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성을 떠나서 창조성을 충분히 발양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떠나서 자주성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

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자주성은 창조성을 발양시키는 요인이며 창조성은 자주성의 실현을 담보한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다.

제3절.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는것이다.

사람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세계는 사람에게 더욱더 복무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모된다.

세계가 사람의 자주성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질적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과정이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변된다는것이다.

세계는 오직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개변될수 있다.

사람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연물들이 가공되여 사회적재부로 새롭게 전환되며 자연환경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된다. 사람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의 발전수준이 높아지고 그 면모도 더욱 개변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것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은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자각하고 주동적으로 제기하며 창조적능력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실현해나간다.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이다.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수준과 령역, 속도가 규정된다.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은 우선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그 수준이 높아진다.

이것은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것이다.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은 또한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그 령역이 확대된다.

이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 강화될수록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령역이 확대된다는것이다.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은 또한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 빠른 속도로 강화될수록 자연과 사회가 사람에게 리로운것으로 더욱더 빨리 개변되게 된다

는것이다.

제4절. 세계를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한다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물현상들의 가치를 분석평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물현상의 가치는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옳바로 평가할수 있다. 사물현상의 가치를 옳바로 평가한다는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에 의의가 있고 쓸모가 있는가,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리로운가 하는것을 정확히 확정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곧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이 사물현상의 가치를 옳바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자기의 리익에 맞는 대상을 바로 선택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또한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더 잘 실

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모든것을 처리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맞게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대상들을 처리해나가야 자기에게 불리한것은 유리한것으로, 유리한것은 보다 더 유리한것으로 개조하여 세계의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만들고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여야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에서 사람의 리익이 가장 귀중하기때문이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의 다른 하나는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적극적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선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세계가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발전된다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의 개조발전은 오직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사람의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은 세계를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또한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적극적활동을 가장 위력하고 힘있는 기본요인으로 보고 그에 의거하여 다른모든 요인들을 작용시켜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의 적극적활동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개

조변혁해나가는 결정적요인을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은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게 한다.

제2장.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며 사회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데로부터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제1절. 사회에 대한 리해

사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데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생활하는 집단이다.

사회적재부는 사람들이 창조하여 리용하는 물질적재부와 정신문화적재부를 말한다.

사회적관계는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전사회적범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관계의 공고한 질서, 체계가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에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가 있다.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가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기때문이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이 진행하는 생활은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이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정치생활은 사람들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생활분야이다. 사람은 국가와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려는 요구, 정치적요구를 가지며 이러한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 정치생활이다.

정치생활은 크게 국가정권을 통한 정치생활과 정당, 단체를 통한 정치생활로 나누어볼수 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사람들은 정치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정치생활을 통하여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을 자주적요구에 따라 진행해나갈수 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이다.

물질적부의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를 통하여 자기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가는 생활이 경제생활이다.

경제생활은 사회의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창조적로동생활이며 생산된 물질적부를 소비하면서 살아나가는 물질생활이다.

사회주의경제생활은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해주는 가장 우월한 경제생활이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경제생활에 의하여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이 마련된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요구와 물질적요구뿐아니라 정신문화적요구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사람은 그저 입고 먹고 쓰고 사는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면서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문명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정신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생활이 바로 사상문화생활이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에 의하여 정치, 경제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깊은 과학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키우며 고상한 도덕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게 된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의 성격은 우선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고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정권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해당 사회가 어느 계급, 어느 집단이 정치적으로 주인의 지위에 있는 사회인가 하는것이 규정되며 그 사회정치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이 규제된다.

사회의 성격은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의하여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경제적으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인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국가정권에 의하여 합법화되고 담보되여야 사회의 지배적인 관계로 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공고발전도 국가정권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회는 그 성격에 따라 착취사회와 사회주의사회로 구분된다.

착취사회는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착취사회에는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가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착취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지난 모든 착취사회와 달리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처음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다.

제2절. 사회력사의 주체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원인도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사상문화적재부도 사회관계, 사회제도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개조변혁된다.

결국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관계가 발전하며 그에 따라 력사가 전진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룸으로써 비상히 높아진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문제는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발전수준,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꼭 같은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착취사회에서 오래동안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지 못하였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주로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여왔다.

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선진적인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 조직화되면서 비로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였다.

력사를 전진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동적통치계급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과정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더욱 강화발전되자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통일적인 령도밑에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간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데서 기본은 옳바른 정치적령도를 받는것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해나갈수 있다.

제3절.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성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준다.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인 운동이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 원리를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

동이라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주적인 존재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모든 사회적운동이 일어나고 전진해나간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진행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우선 사회개조와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또한 일정한 력사적순차성에 따라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다같이 진행되지만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보다 전면에 나서는것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가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실현되여나간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또한 국제적성격을 띠고 진행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띤다는것은 그것이 국

제적범위에서 벌어진다는것 다시말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과정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세계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의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과도 관련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그 종국적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인것만큼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서는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우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를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자주성을 유린하고 구속하는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라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는 창조적인 존재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은 우선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창조과정이 곧 투쟁과정이라는것은 새것이 낡은것을 극복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창조되고 발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창조적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은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은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그들의 본성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시켜주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인것만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창조적립장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

어나간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은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는 원리를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입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는것은 이 운동이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는 운동이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의식적인 존재라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은 우선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규제적작용밑에 진행된다.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은 또한 혁명운동이 발전하는데 따라 그 의식적성격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사회적운동의 의식적성격이 강화된다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이 더욱 높아진다는것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은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비할바없이 높아진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그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는 위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상의식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것을 요구한다.

혁명운동은 의식적운동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이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사상적요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조건을 성숙시켜나간다는것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기술실무적 및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제3장.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다.

제1절.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사상에서 주체의 원칙은 사상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우선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 혁명적당의 로선과 정책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구현한것이며 그 나라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야 한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자기 나라 인민의 풍습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력사, 혁명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작은 나라 민족일수록 더욱 강해야 한다. 더우기 지난날 오래동안 남의 압박을 받아온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복고주의적경향과 허무주의적태도를 배격하고 력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결합시켜 그 우수한 전통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제국주의자들이 《고도기

술무기》와 《물질기술적우세》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을 면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가장 유해로운 사상조류는 사대주의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이다.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사대주의이며 사대주의가 안내하는 길이 매국과 반역의 길이다.

사대주의를 하면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되고 남을 쳐다보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데로부터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은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는것은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기때문이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

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려야 한다.

정치적력량은 혁명력량에서 기본을 이룬다.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자주권을 쟁취하고 고수할수 있으며 자주적인 정치를 보장할수 있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다.

당들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당들사이에 높고 낮은 당이 따로 있을수 없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국제주의적단결은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은 경제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이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

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배와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하지 않고 남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건설하려고 하다가는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될수 있다. 진정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경제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립경제는 응당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경제를 공고한 토대우에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자체의 발전된 기술이 있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민족기술인재문제를 해결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으로 하여 현대과학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나라들이 민족기술간부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새 사회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대외무역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하고있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경제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없으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다. 이러한 경제는 예속경제나 다름없다.

나라들사이에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다른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여도 대외무역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당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방력이 약하면 종당에는 남에게 예속되여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인 혁명적무장력을 가져야 한다.

혁명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담보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우자면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체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적들이 언제 어디로 덤벼들어도 제때에 철저히 섬멸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전쟁은 군인들의 사상정신적힘과 군사적지략의 대결인 동시에 무장장비의 대결이다. 자체의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혁명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갖출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갱신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절.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인민대중에 의거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력을 동

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있는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발동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야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운 로선과 정책은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 대중은 하나로 굳게 단결되였을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놀라운 힘을 나타낸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자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소홀히 하면 혁명의 동력으로 되는 계급과 계층들을 반동으로 만들수 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패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

으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군중적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반대하고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군중적투쟁을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적당은 언제나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정권을 잡은 다음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실정에 맞게 한다는것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자면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한다.

혁명의 투쟁목표와 주타격방향을 정하고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며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규정하고 혁명의 적절한 시기를 옳게 선택하는 등 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성된 객관적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준비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자면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여야 한다.

기성리론의 명제나 공식을 대하는데서는 그것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

영하며 또 어떤 전제밑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고 자체의 구체적현실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자면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혁명적당은 시대가 변하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혁명사상과 리론을 탐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사업을 옳게 하지 못하여 혁명사상의 수정주의적변질이나 교조주의적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혁명은 옳은 지도적지침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자면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반영한것이다. 남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통채로 삼킬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립장을 지켜야 한다.

제3절.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가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은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

업선행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상개조선행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가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사상개조를 앞세운다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사상을 개조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사상개조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와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자면 우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견결한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견결한 혁명정신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드는 진짜배기혁명투사로 자라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자면 또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인것만큼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세우자면 혁명적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주체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인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자면 혁명적도덕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의 확립정도는 혁명적수령관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한 신념으로 되자면 인생관화되여야 한다.

혁명관을 인생관화한다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관을 자기 삶의 요구로,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혁명관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을 생활화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업선행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가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데 정치사업선행의 본질이 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동원하는 방법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전사회적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업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치밀한 행정조직사업, 과학적인 기술경제사업을 요구한다.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인민

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할수 있다.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정치사업을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려나가며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편.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혁명의 일반원리로부터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리론,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리론과 조국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리론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리론과 전략전술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제1장. 혁명의 일반원리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본질과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 혁명승리의 근본요인과 혁명운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일반원리들을 새롭게 밝혀준다.

제1절. 혁명의 본질과 혁명의 근본원리

혁명의 본질과 근본원리에 관한 문제는 혁명리론을 전개하는데서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문제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은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벌리는 혁명투쟁은 그 류형이 다양하고 발전단계에 있어서 내세운 투쟁과업과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다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인 예속과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곧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다.

낡은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저애하는것이며 새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이다.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옹호되고 실현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을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자주성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벌리는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라고 한다.

혁명은 또한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이다.

혁명이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이라는것은 그것이 일정한 조직의 지도밑에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수행되는 투쟁이라는것이다.

혁명은 자연발생적으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은 조직을 뭇고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는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조직에 의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된 인민대중이 수행하는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으로서의 혁명은 두가지 기본내용을 담고있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다.

낡은 사회제도가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뀌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이룩되며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 지배계급들사이에 벌리는 정변이나 개량, 개혁이나 개편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도록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변혁이 아니므로 혁명으로 될수 없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이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인민대중이 사상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수 없다.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기 위한 3대혁명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혁명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혁명과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혁명은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우선 그 내용과 투쟁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낡은 착취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로 바꾸는 혁명이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민대중을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낡은 착취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로 바꾸는 혁명의 투쟁대상이 낡은 착취사회제도의 유지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반동적인 착취계급, 지배계급이라면 3대혁명에서 없애야 할 대상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 낡은 사상과 문화, 뒤떨어진 기술이다.

또한 그 수행방식과 방법,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는 혁명이 폭력적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사회제도를 변혁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착취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면 끝난다. 그러나 3대혁명은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시작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전면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수행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생활을 요구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이 나라와 민족

을 단위로 하여 각이한 발전단계에서 여러가지 특성을 띠고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원리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 누구도 다른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다른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해줄수도 없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풀어나가야 할 권리와 책임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있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리치를 정확히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인 원리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 때에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제2절. 선군혁명원리와 원칙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총대를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에 작용하는 혁명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선군혁명원리는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주기 위한 출발점이다.

선군혁명원리는 총대철학과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를 포괄하고있다.

선군혁명원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총대철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습니다.》

총대철학은 총대에는 총대로 맞서고 혁명은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것이다.

혁명에서 기본은 총대이다. 혁명이 총대란 사상정신적힘과 결합된 무장력, 혁명무력을 의미한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강한 혁명무력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총대철학의 기본내용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는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혁명무력에 의거하는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시작된다는것이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간다는것이다.

선군혁명원리는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것이다.

군대는 곧 당이라는것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혁명적당의 존재와 발전이 좌우된다는것이다.

군대는 곧 국가이라는것은 총대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정권이 유지되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곧 인민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지위와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군혁명원칙은 군사선행의 원칙과 선군후로의 원칙을 포괄하고있다.

선군혁명원칙에서 중요한것은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입니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거기에 최대의 힘을 넣는 원칙이다.

이것은 군사를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거기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국방력강화에 나라의 모든 력량을 집중한다는것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또한 군사사업을 앞세우면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군사사업발전에 적극 따라세워 다같이 균형적으로 밀고나가는 원칙이다.

이것은 군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는것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우선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사를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나라의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빠른 시일안에 나라의 전반적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며 그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함으로써 군사력을 최단시일내에 신속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무장장비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군사사업에 총동원함으로써 군사력의 질적수준을 비상히 높이고 그에 대한 량적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국력강화의 근본담보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국방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적, 경제적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국력의 튼튼한 과학기술적, 경제적기초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군사력의 현대화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

국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할수 있게 한다.

선군혁명원칙에서 중요한것은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다.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핵심적지위를 차지하고 선봉적, 주도적역할을 하는 혁명집단을 말한다.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집단인 혁명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본보기로 내세우고 혁명군대의 선봉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이 바로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우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내세움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명령,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가장 높은 혁명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로 내세움으로써 혁명군대가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혁명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창조와 투쟁에로 고무추동한다.

제3절. 혁명승리의 근본요인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을 새롭게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와 구속은 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지난 시기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도 착취계급의 압박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일어났다.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은 그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와 략탈이 있는 한 민족해방투쟁이 일어나는것은 법칙이다. 결국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으로 하여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유물에 의하여 자주성을 구속당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저애를 준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착취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혁명투쟁을 벌리게 된다.

자주성에 대한 침해와 구속이 있는 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구속당한다고 하여 혁명이 아

무때나 저절로 일어나는것은 결코 아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에 있다.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을 가진다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사상적각오와 의지를 가진다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그것을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면서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다.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의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준비에 있다.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준비된다는것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강위력한 하나의 정치적력량을 이룬다는것이다.

일시적충동만으로는 혁명조직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길에 나설수 없으며 설사 혁명에 나섰다고 하여도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

혁명은 그것을 담당해야 할 인민대중이 자기의 전위부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투쟁할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일어나고 전진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할수 있는 정치적력량으로 준비되지 못한데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을 새롭게 밝혀준다.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혁명의 주체와 객관적조건과의 관계에서 어느것이 결정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혁명승리에 작용하는 객관적조건에는 물질기술적수단, 사회제도, 국제적환경과 자연지리적환경 등이 포함된다.

객관적조건이 혁명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은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되지 못한다.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추동력이다.

혁명의 주체에 의하여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마련되고 옳게 리용된다.

유리한 객관적조건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마련되고 혁명승리에 작용하게 된다. 혁명의 주체가 준비되지 못하고 제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면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마련될수 없고 비록 마련되였다 하더라도 혁명승리를 이룩하는데 옳게 리용할수 없다.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혁명에 불리하던 객관적조건이 유리한것으로 전변될수 있다. 반대로 혁명의 객관적조건이 유리하다 하여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지 않으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없다.

혁명투쟁에서 객관적조건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있다.

혁명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되였을 때에만 일어나게 되며 그 승패의 근본요인도 객관적조건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혁명승리의 근본비결이 있다.

제4절.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

혁명투쟁은 다른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혀야 혁명을 수령을 중심으로 옳게 리해할수 있으며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독창적으로 밝혀준다.

수령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이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은 수령이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특출한 지위에 있다는것이다.

수령은 우선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시키는 사상적, 조직적, 도덕의리적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의 중심이다.

수령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혁명사상을 내놓는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군대와 인민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옳바로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군대와 인민을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로 된다.

수령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조직적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들을 내오며 그를 통하여 군대와 인민을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시킨다. 그러므로 수령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조직적단결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도덕의리적통일의 중심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높이 발현된다.

수령은 또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령도의 중심이다.

개별적사람의 생명활동을 지휘하는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여러 정치조직들과 집단, 그에 속한 많은 대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은 오직 그 최고뇌수인 수령만이 될수 있다.

수령에 의하여 모든 정치조직들과 집단, 각이한 계급, 계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유일적령도가 실현됨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이 통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인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수령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이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수령이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수령은 우선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심화발전시켜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경험을 정확히 분석일반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며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간다.

수령은 또한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고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을 의식화할수 있는 사상적량식을 마련할뿐아니라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한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과 군대를 창건하고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에 있어서 그 어느 사회적집단보다 우월한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함으로써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한다.

수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혁명력량의 준비정도, 객관적조건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현명하게 이끈다.

수령은 또한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수령은 혁명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위업

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추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후계자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후계자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줌으로써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여나가도록 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력사적위업인것만큼 그것을 완성하자면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야 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뛰여난 예지, 탁월한 령도력과 인민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령도자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를 그대로 계승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것이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되여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수령이 마련한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해나간다. 혁명운동에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 흘러나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것이다.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신다는것은 수령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이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는것이다.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것은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조화하고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조화한다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집행한다는것이다.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확고한것으로 간직하자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다는것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확고한 결심과 사상적각오를 가진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한다는것은 수령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화한다는것은 수령을 자기 운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가진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한다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일상생활속에서 공고화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한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한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변함없이 이어져야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게 하는 영원한 충실성으로 될수 있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원한 충실성이라는데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의 근본특징이 있다.

제 2 장. 민족해방, 계급해방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밝히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제 1 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본질과 그 수행의 력사적필연성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을 당면한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이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봉건적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혁명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다른 사회혁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우선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혁명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대상인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결탁되여있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봉건적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봉건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결탁하고 그에 추종하면서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한다.

이런 조건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반봉건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국내봉건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반제적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이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밀접히 결합되여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혁명이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들까지 포함한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은 외래제국주의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는데 다같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하게 된다. 이 혁명에서 령도계급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철저한 자주적계급이며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령도하여 혁명을 이끌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앞장에 서며 그 혁명을 령도하게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또한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하는 혁명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준비이며 그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로동계급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력사적사명으로 하는것만큼 민주주의혁명에 머무를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게 된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력사적필연으로 제기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나라에서 제국주의세력과 봉건세력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것이다. 또한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고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는것이다.

민주주의적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제2절. 사회주의혁명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본질과 그 수행의 력사적 필연성에 관한 리론이다.

사회주의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놓는 혁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입니다.》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하는것은 착취와 압박의 사회적근원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의 모든것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사회의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게 한다. 그것은 또한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하게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로 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이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사회주의정권에 의해서만 농민을 비롯한 소생산자들을 사회주의의 길로 옳바로 이끌수 있기때문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는 가장 옳바른 방도는 이미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부르죠아정권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는 이미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게 된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도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농업협동화이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여야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하고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뿐만아니라 농민들을 사회주의경제체계에 망라시킴으로써 로농동맹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있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옳바른 길은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농업협동화실현의 결정적조건과 공동경리의 우월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한 가장 정확한 농업협동화방침이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

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그 주체인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 농촌경리의 담당자이며 주인인 농민들자신이 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맡아할수 있는 력량이 준비된 조건에서는 현대적농기계가 없다고 하여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미룰 필요가 없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 할지라도 농민대중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는 농업협동화를 능히 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을 옳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조직전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며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고 협동화운동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는것이다.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농촌경리를 협동화할뿐아니라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할수 있다.

개인상공업에는 도시의 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이 포함된다.

도시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것을 협동화하는것이다. 수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개조는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옳게 이끌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수 있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중소기업가, 상인들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시기에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부르죠아일반을 수탈의 방법으로 청산하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되여있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혁명시기의 계급적력량관계와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들을 수탈하지 않고 제한, 리용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길을 밝혀준다.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효과적인 방도는 그것을 국가의 지도방조밑에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를 통하여 개조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착취와 압박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된다.

제3장.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완전히 실현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준다.

제1절.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은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것을 밝히였다.》

사회주의는 우선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를 관리하는 주인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혁명적당과 당의 령도를 받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 사회주의정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들이 주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진정한 대표자들을 자기 손으로 선출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하며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적소유관계가 확립되여 인민대중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 있고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사회에 대한 관리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해나간다.

사회주의는 또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당과 국가의 옳바른 정책과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누구나 다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안정된 일자리와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의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선진적인 사상문화의 참다운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가 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준비되며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린다.

사회주의는 또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라는것은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가장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인것으로 하여 가장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로 된다.

사회주의가 우월한 사회라고 하여 그 우월성이 저절로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 어느것이나 다 자본주의보다 우월한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우월성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것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준비정도가 같지 않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 주인인 사람들이 그에 맞는 자주적인 사상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지 못하게 된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니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때 사회주의는 자기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지향이다.

인민대중은 그 본성에 있어서 자주성을 지향한다. 자주성을 지향한다는것은 곧 사회주의에로 나아간다는것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근본지향이며

요구인 자주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끝장내고 사람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사회주의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사회주의는 그 누가 머리속에서 고안해낸것이 아니라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향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지향인 동시에 의지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의지는 사회적인간의 자주적념원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다.

시대와 력사가 발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이 높아질수록,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회주의를 반드시 실현하고야말 인민대중의 의지는 더욱더 억세여지고있다.

현실은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변할수 없는 지향이고 의지이며 이것으로 하여 그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에로 넘어가는것은 인류사회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실현될수 없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집단주의는 자유와 평등, 협력과 단결을 낳고 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으며 사회성원들의 집단적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훌륭히 실현된다.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에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이 인류사회발전의 력

사적총화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이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력사발전과정에서 새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며 낡은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억제하는것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이 과정에서 새것은 반드시 낡은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새것이며 착취사회, 자본주의는 낡은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낡은 착취사회를 영영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낡고 반동적인 착취사회가 멸망하고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의 승리가 필연적이지만 사회주의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신념화한다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사상적각오와 의지를 가진다는것이며 사회주의를 도덕화한다는것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간직한다는것이다.

제2절.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총적인 목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옳게 내세워야 사회주의건설을 일관성있게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과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정치사상적통일체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며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 인민대중이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과 문화적락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참다운 사회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며 온 사회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될 때 비로소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온 사회에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 때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사회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두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이 사회주의사회의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운명은 사회주의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회주의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그 위력으로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사회일뿐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매우 유족하고 풍요한 사회이다. 따라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은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 사회개조사업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3 대분야이며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됩니다.》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이다.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다.

자연개조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축성되게 된다.

경제건설은 구체적인 객관적조건과 환경속에서 벌어진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자면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원칙, 집단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도 자기의 실정에 맞는 자기 식의 방도를 찾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개조사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진행되는 사회개조사업은 사회관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사회주의적사회관계를 전면적으로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사회개조사업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다. 이와 함께 사람들사이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단결과 협력의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문화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사회주의적사회관계를 보다 철저히 확립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

한 투쟁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최고강령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해나가는 과정이다.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혁명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목표와 방향,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집대성하고있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기때문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본질적내용은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참된 전사, 제자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들로 준비될 때 사회주의위업은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본질적내용은 또한 정치와 군사, 경

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위업완성은 자연과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집단주의적사회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 때 실현된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여기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최종목적으로 뚜렷이 내세우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힌 완성된 혁명학설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의 리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된 사회라는것을 밝히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리상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까지 다 밝혀주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와 혁명적로정,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총로선 등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과 투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당과 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제3절.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사회생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지휘권이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과 그 발전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정치조직이라는것을 말한다.

인민정권의 기본사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인민정권은 우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대표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보살펴준다.

인민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조직동원된다. 인민정권은 교육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사업을 틀어쥐고 그 발전을 힘있게 떠밀고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운다. 이와 함께 당의 령도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가장 포괄적인 국가정치조

직에 망라시키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전사회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킨다.

인민정권은 또한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인민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이 이룩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인민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민정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려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권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을 당에 충실하고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리고 인민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며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하는것이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려면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이다.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되는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기때문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고 사람들은 계급적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만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3대혁명에서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이다.

사상혁명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혁명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온 사회의 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혁명적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3대혁명에서 중요한것은 기술혁명이다.

기술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기술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개조가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로대중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해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혁명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과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기술혁명은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술혁명수행의 기본방향은 기술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자기 인민의 자주적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제기된 혁명과업과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 그 단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옳바른 원칙을 견지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에서 중요한것은 문화혁명이다.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화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인민대중을 문화적락후성과 비인간적인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높은 창조적능

력의 소유자로, 참다운 사회주의적문화생활의 향유자로 만들수 있다.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분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가는것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제4절.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구현해나간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어떤 특정한 계급과 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이며 근로인민대중은 다같이 자주성실현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있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다같이 옹호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그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이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구현해나갈데 대한 원칙의 본질적의미가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구현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건설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우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기 민족의 사상감정과 우수한 기질, 전통을 지키고 적극 살려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그 자주적본성과 력사적, 현실적조건에 맞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위업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력사적,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곧 자주성이며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생명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는 계급적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완성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민족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인것만큼 주체성과 민족성을 무시하면 불피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요구도 제대로 실현할수 없게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때에만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

업으로 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성원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넋을 지키려고 하며 자기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 이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인민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넋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것을 좋아할 인민이란 있을수 없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과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민족성원들도 노예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인민들은 다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하고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고 적극 보존발전시키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대중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 신뢰속에 전진해나가도록 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이 보장되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관계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억제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에는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에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국제적위업이다. 세계사회주의위

업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여나간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야 세계사회주의위업도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애국애족의 립장을 지키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며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그리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제5절.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정치방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을 새롭게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에는 인덕정치와 선군정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인덕정치와 선군정치이다.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에서 중요한것은 인덕정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정치방식이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는것이 강권정치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것이 금권정치라면 끝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것이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우선 인민에 대한 끝없는 믿음의 정치이다.

인민을 믿는다는것은 인민의 사상을 믿고 힘을 믿는다는것이다.

인민의 사상을 믿는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믿고 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믿는다는것이며 인민의 힘을 믿는다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이 무궁무진하며 그들을 하나로 굳게 단결시켜 동원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믿는다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믿음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세우며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집행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덕정치는 또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치이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킨다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덕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인덕정치는 우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사회를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사회적집단과 그 성원들사이, 사회의 개별적성원들사이에 꽃펴나며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사회주의정치의 본질을 이루며 인덕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인덕정치는 또한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인덕정치는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철통같이 묶어세운다. 인덕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면서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뿐만아니라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리하여 군대와 인민이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사회의 밑뿌리가 굳건히 다져지게 된다.

인덕정치는 또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인덕정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주인답게 떨쳐나서게 한다. 인덕정치는 인민대중에게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을 힘차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인덕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덕정치를 실현하자면 우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에서 중요한것은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그 시원을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고 완성시키신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

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우선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는 정치방식이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는것은 군사를 나라의 제일 중대사로 여기고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간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또한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다.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은 혁명군대를 혁명력량편성에서 핵심력량으로 내세우고 그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선도자적역할에 의거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간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핵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원리와 원칙,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자주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실현할데 대한 혁명의 근본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적인 혁명원리와 원칙, 방법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가장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자주의

정치로, 가장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된다.

선군정치는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고있다.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무궁한 번영도 있으며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자주적인민도 있을수 없다는 선군혁명원리는 혁명투쟁의 준엄한 력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혁명의 철리이다.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은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선군정치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것은 그것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혁명적당과 혁명무력, 일심단결은 선군정치가 의거하는 3대혁명력량이다.

혁명적당은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이다.

이것은 혁명적당이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의 정치이다.

혁명무력, 혁명군대는 선군정치의 믿음직한 척후대이며 억척의 지지점이다.

이것은 혁명군대가 단순한 무장집단이나 혁명의 수단이 아니라 당의 선군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드는 기수, 돌격대이며 선군정치가 의거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실현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철저히 실현되여나간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우선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가장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리념인 사회주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움으로써 나라의 국방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하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혁명군대의 선봉적역할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원칙인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는 계급의 총대, 혁명의 총대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의 최고표현인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람들을 철저히 무장시켜 사회주의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는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공고히 하며 그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이끌어올릴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혁명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혁명

군대의 모범을 따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끈질기고 악랄한 봉쇄와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정치를 철저히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인민군대의 선도자적역할을 높이고 그 모범을 일반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인 인덕정치와 선군정치는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덕정치는 총대와 모순되지 않으며 강한 총대를 전제로 한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해로부터 당과 정권,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보위함으로써 인덕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준다. 총대에 의해서만 인민의 자주적지위가 담보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더욱 꽃펴나게 되며 이것은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으로 된다. 다른 한편 인덕정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선군정치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인덕정치와 선군정치가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정치실현에서는 인덕정치와 선군정치를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제4장. 사회주의강국건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와 기본징표, 강국건설의 합법칙적과정과 전략적로선을 비롯하여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제1절.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와 기본징표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강국은 사회주의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는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우선 국력이 강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세계를 앞서나가는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운 나라이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력,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고 인류문명의 최첨단을 돌파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줄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사회주의강국의 국력이다.

사회주의강국은 또한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나라이다.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나라란 모든것이 번성하고 일이 잘되여나가는 나라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커다란 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나라를 말한다.

사회주의강국은 또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누리는 나라,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값높은 정치생활과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 가장 고상하고 문명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자기의 기본징표로 한다.

사회주의강국은 정치사상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정치사상적위력이 최고의 높이에 올라선 정치사상강국이다.

정치사상강국은 우선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확고히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이다.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조류가 침습할수 없는 사상적으로 견결하고 건전한 나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된 나라가 바로 정치사상강국이다.

그리고 천만군민의 사상의 힘, 강한 정신력으로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고수해나가며 혁명과 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나라가 바로 정치사상강국이다.

정치사상강국은 또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정치적지반을 가진 나라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나라가 정치사상강국이다.

특히 정치사상강국은 정치적지반에서 가장 중요한 력량인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로서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는 나라이다.

청년강국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전위조직과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부강번영하는 나라이다. 다시말하여 수령결사옹위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정치사상강국은 또한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면서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나라이다.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여 그 어떤 력사의 풍파와 도전에도 끄떡없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나라가 정치사상강국이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자주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정치흐름을 인류의 본성과 념원에 맞게 자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나라가 바로 정치사상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군사강국이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강력한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 반제계급투쟁을 주도해나가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우선 무적의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나라이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나라가 바로 사회

주의군사강국이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또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고 반제계급투쟁을 주도해나가는 위력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세계제패전략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자주화를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 세계인민들의 자주화위업, 반제계급투쟁을 힘있게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나라이다.

사회주의강국은 경제강국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우선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실현되여 자기 식의 경제발전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경제적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풀어나가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또한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되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정보화가 실현된 나라가 경제강국이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은 문명강국이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우선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문화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온 나라를 사람들의 건강과 활동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문명강국이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은 또한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전체 인민이 새 세기 문명개화기의 요구에 맞게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준비되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다.

제2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합법칙적과정

사회주의강국은 일정한 합법칙적과정을 거쳐 건설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은 무엇보다먼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은 그것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철저히 실현하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우선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기때문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고 누구나 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김정일**애국주의가 사람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로 떠미는 원동력으로 되기때문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한 사람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애국의 창조물을 남길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 고향과 부모처자,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보석처럼 간직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김정일**애국주의가 천만군민의 단결의 위력을 강화하는 사상정신적기치로 되기때문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 최대의 헌신으로 일관된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천만군민의 애국의 힘으로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을 건설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은 다음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은 그것이 지난 세기의 낡고 뒤떨어진것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본새와 창조방식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며 모든 분야에서 비상한 전진속도로 세계를 향하여 기세차게 돌진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우선 대비약, 대혁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안목과 혁신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기적과 위훈을 떨쳐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하고 웅대한 강성국가건설목표를 가까운 앞날에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길은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대비약, 대혁신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속도로 최첨단을 돌파하고 총공격전을 벌려 세계의 선진수준을 따라앞서도록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만군민이 총공격전을 벌려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때 현대적인것,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것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은 다음으로 치렬한 계급투쟁,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치렬한 계급투쟁,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은 그것이 초강경으로 제국주의를 비롯

한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치렬한 계급투쟁,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주의강국이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건설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적대계급들의 군사적침략과 와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이 치렬한 계급투쟁,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강국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되기때문이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수호전은 강국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고 투쟁과업이 방대해짐에 따라 그 투쟁령역도 보다 확대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반제군사전선뿐아니라 정치사상전선, 경제문화전선에서도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제3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한다는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을 뗄래야 뗄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정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혼연일체로 만든다는것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적지반을 굳건히 다지고 그 어떤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정치적안정을 고수하고 자주정치를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온 사회에 수령의 유일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적인 사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위력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불패의 군력과 위력한 경제력을 마련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불패의 군력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위력한 경제력은 일

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마련되게 된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진다는것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것이다.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고 강화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으며 강성국가도 건설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고 강화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의 정치사상적,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군사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불패의 군력은 총대로 강성국가의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뿐만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을 심어주고 전체 인민이 사상과 신념의 강군인 혁명군대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신력을 최고의 높이에 끌어올릴수 있게 한다.

불패의 군력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과 조건을 믿음직하게 마련하여주며 혁명의 주력군인 혁명군대의 선봉적, 핵심적역할은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에서 혁명적대

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다. 뿐만아니라 그 기초로 되는 위력한 국방공업이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일반화하고 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생산부문들의 생산장성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것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력강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자면 인민군대를 위력한 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사회주의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첨단과학기술로 현대화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일신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기때문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의 힘과 지혜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주적립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도 발전시켜나갈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도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고 더 새롭고 발전적인것으로 만들어나갈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술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여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여야 인민들을 어

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활적으로 절감하게 될때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며 사회주의를 자기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삼고 그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 정보화하여야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예비물자들을 넉넉히 마련함으로써 싸움준비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자면 강국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가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

제5장. 조 국 통 일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고 고귀한 유훈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제 1 절.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주체

주체의 혁명리론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선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전국적범위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는 조건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나라의 한 부분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밑에 있는 조건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이 확립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당당히 행사되고있지만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의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남조선처럼 민족적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곳은 없다. 남조선이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권이 전국적범위에서 확립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바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또한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제 2 차 세계대전후 조선문제가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되면서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생겨난것이다. 그리고 민족안의 불신과 대립도 미제의 민족리간책동으로 하여 조성된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반공화국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고취해왔다.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활적인 요구이며 우리 민족의 존망,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내부문제라는것은 그것이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렬된 나라의 통일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고 또 패전국도 아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인것만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조국통일의 주체에 대하여 밝혀준다.

조국통일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조국통일성업의 실제적담당자에 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라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체가 그 어떤 외부세력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전체 민족성원이라는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이 전체 조선민족을 위한 조선민족자신의 숭고한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며 북반부 인민들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로 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의 항시적인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은 북반부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운명과 뗄수 없는 사활적인 요구이며 따라서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주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조국통일의 주체에서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은 나라의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절절하게 바라고있는 중요한 정치적력량이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민족분렬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강요당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량심적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력량이 조국통일의 주체를 이루게 된다.

조국통일의 주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해외의 애국력량이다.

해외동포들은 비록 다른 나라 땅에서 살고있지만 어디까지나 한피줄을 나눈 우리 민족성원들이다.

오늘 해외동포들은 애국, 애족의 리념을 지니고 나라의 통일을 절절히 바라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미제에 추종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민족의 단합이 아니라 분렬을 꾀하는 반통일세력은 조국통일의 투쟁대상으로, 민족의 원쑤로 된다.

제2절. 조국통일의 3대헌장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 3대헌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자주정신과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전민족적인 통일강령이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강령이며 통일위업수행의 전행정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조국통일 3대헌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주의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출발점이며 기초적인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이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괴뢰들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조국통일문제가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이다.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민족내부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는 문제인것만큼 전쟁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바

라는 모든 애국력량을 묶어세워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립장에 서야 한다.

조국통일 3 대헌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민족대단결의 목표는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며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이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것이며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는 북과 남이 정치군사적대결을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며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민족대단결의 도모에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접촉과 래왕, 대화를 통하여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고 단합하며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것이다.

조국통일 3 대헌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

도를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인 국가로서 통일하자는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련방국가의 기능과 그 운영원칙, 련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 련방국가의 국호와 성격이 규정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고 민족공동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옳게 반영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주변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조국통일의 3 대헌장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제6장. 온 세계의 자주화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현시기 세계혁명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전략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다.

제1절. 온 세계의 자주화의 본질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간다는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우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곧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의 자주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청산될 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에서 벗어나 자주의 길로 나아갈수 있으며 비로소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수 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새 세계를 건설한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할뿐아니라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자기의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한다고 말할수 있다.

비록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났다고 하여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면 자기 나라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고수할수 없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뿐아니라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 비로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청산하는 문제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수 없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행사함이 없이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없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가 청산되고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되게 된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한다는것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를 자주성에 기초한 관계로 전환시킨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아니라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국제사회를 민주화한다는것은 제국주의지배세력이 만들어놓은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권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롭고 공고한 국제질서를 세운다는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가 공고한 국제질서로 전환되고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된 세계가 바로 자주화된 새 세계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현시기 세계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현시기 세계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현시기 세계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기때문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청산되여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게 되며 낡은 국제질서가 청산되여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온갖 불평등이 없어지고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져 모든 나라들에서 자기 인민의 리상과 념원에 맞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어느 한 개별적인 나라와 민족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공동의 투쟁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매개 나라 인민들은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제2절.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전략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전략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매개 나라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주체는 그 나라 인민이지만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체를 이루는 반제자주력량에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운동, 반제민족해방운동, 쁠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 등이 포함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주성에 기초하여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자주위업에 도전하고있는 조건에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민족, 작은 민족 할것없이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세력을 청산할수 없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해나갈수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할 때에만

반제자주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밝힌 독창적인 전략적구호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 주체를 이루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자면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을 강화하자면 평양선언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자면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직도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나라 인민들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자면 쁠럭불가담운동을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쁠럭에 대처하여 온갖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력량이며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력량을 분렬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

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근본리념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은 반제자주이며 근본원칙은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아가는것이다.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자면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세계평화옹호운동에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이 참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세계평화옹호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전략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분쇄해버리는것이다.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은 오늘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이다.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의 첫째가는 투쟁대상, 주타격대상이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이기때문이다.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분쇄하자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뜨고 미제의 오만한 전횡과 강권행위에 정면으로 맞서 견결히 투쟁하며 미제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제적인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다.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고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국제적인 범위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에 비한 반제자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수 있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분쇄해버릴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전략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하는 나라들과 당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옳바른 대외정책리념이다.

자주의 리념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시대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리념이며 평화의 리념은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리념이다. 친선의 리념은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것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되는 리념이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견지하자면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제3편. 주체의 령도방법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였으며 특히 집권당의 령도방법,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기하고 완성하였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력사적공적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특징, 혁명적령도원칙, 혁명적령도체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집대성되여있다.

제1장.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특징

주체의 령도방법에 의하여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특징이 독창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제1절. 혁명적령도의 본질

주체의 령도방법은 혁명적령도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다시말하여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령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면서 자기 운명

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적령도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로 되는것은 당과 수령이 혁명의 주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다.

당과 수령은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한다.

혁명적당은 혁명의 참모부, 향도적력량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주체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이다. 따라서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우선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도록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는 문제는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실현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 그들을 의식화한다. 인민대중은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됨으로써 비로소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혁명운

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것은 곧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켜나가는것이다.

선군시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또한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자기의 힘과 지혜,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인민대중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다. 단결된 인민대중은 개별적사람들의 힘에 비할바없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하나로 결속하는 사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꾸리고 그를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위력한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만든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선군시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혁명군대의 주도적, 선구자적역할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비

상히 높여나가게 한다.

제2절. 혁명적령도의 특징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중령도의 전형, 본보기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당활동에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인민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령도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령도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령도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가장 과학적인 령도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가 가장 과학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과 합법칙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령도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적특성,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진행되는 혁명운동의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가 백과전서적인 령도라는것은 그것이 혁명적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명을 주는 령도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령도이다.

우리 당의 령도에는 가장 옳바른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까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담고있다. 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방법으로부터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과 그들을 대하는데서 구현하여야 할 인민적풍모, 혁명적기풍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대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제 2 장. 혁명적령도원칙

주체의 령도방법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원칙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 원칙, 선군혁명령도원칙을 혁명적령도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독창적으로 밝혀준다.

제 1 절.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원칙

혁명적령도원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다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우선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여야 당이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을 견지할수 있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할 때 온갖 이색적이고 분파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 사회적집단들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지침으로 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되도록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여야만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떨쳐나서고 행동의 완전한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

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이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면할수 없고 편향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결국 혁명위업을 말아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무조건 받들고 철저히 보장하며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활동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는데 지향되고 복종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것이다.

제2절.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 원칙

혁명적령도원칙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로부터 제기되는 령도원칙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

가는것도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령도는 마땅히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혁명적당이 대중령도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적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며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하나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준비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다.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운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만든다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은 반드시 수령의 유일적령도와 결부되여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당과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제3절. 선군혁명령도원칙

혁명적령도원칙에서 중요한것은 선군혁명령도원칙이다.

선군혁명령도원칙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원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선군혁명령도원칙은 혁명적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선군혁명령도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개척과 발전완성의 합법칙성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그 개척으로부터 발전완성에 이르는 전기간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인 군사적대결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은 군사를 중시하고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선군령도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선군혁명령도원칙을 견지하여야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다. 그리고 혁명군대의 주도적, 선구자적역할로 사회주의건설,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실천적경험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가 혁명군대의 주도적, 선구자적역할로 사회주의건설,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령도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선군혁명령도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선군혁명령도원칙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혁명군대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강군으로 만들며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제3장. 혁명적령도체계

혁명적령도체계는 당과 국가, 군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이며 이것은 수령이 당과 국가, 군대를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제도와 질서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제1절.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

혁명적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따라서 혁명적령도체계는 다름아닌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체계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제도와 질서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할수 있으며 모든 정치조직과 기관들, 전체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반당반혁명적사상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수령의 혁명사상의 순

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여야 수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정치조직들과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질서와 규률을 확립할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의 력사적교훈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위업이며 그것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인것만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대를 이어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당이 롱락당하고 혁명위업이 좌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절.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령도체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자면 당의 령도체계, 국가령도체계, 군대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 국가령도체계, 군대령도체계를 바로세워야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 수령의 국가, 수령의 군대로 만들수 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당의 령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혁명적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적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의 령도체계는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제도와 질서이다. 다시말하여 당의 령도체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에 따라 전당과 온 사회가 한결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전당과 온 사회가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섰을 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가 확립되였다고 말할수 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전당과 온 사회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결국 당의 령도체계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이다.

혁명적당이 향도적력량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보장하자면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령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령도체계에서 중요한것은 국가령도체계이다.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자면 국가령도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국가령도체계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이다.

다음으로 군대령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령도체계에서 중요한것은 군대령도체계이다.

군대령도체계는 수령이 나라의 전반적혁명무력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이다.

혁명군대가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면 혁명군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계는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군건설과 군사활동전반을 조직진행하며 혁명무력전반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그에 따라 전반적혁명무력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이다.

제4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주체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제1절. 혁명적사업방법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사업방법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입니다.》

혁명적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에는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집대성되여있다.

혁명적사업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사업을 조직하고 그 집행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방식, 수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우선 혁명적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혁명적당의 대중령도는 옳은 사업방법에 의거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이 있어도 혁명적사업방법이 없으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

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또한 집권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을 막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집권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을 막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적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법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사상정신력을 발동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방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공정으로 삼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들을 도와주어 상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사업방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한다는것은 혁명의 객관적현실과 합법칙성에 맞게 사업을 해나간다는것이며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한다는것은 부단히 변화되는 구체적환경과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적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다.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한다는것은 무슨 일이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설정된 목표를 담대한 배짱

을 가지고 진공적으로 밀고나가 최상의 수준에서 끝까지 수행한다는것이다.

혁명적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군대를 선구자, 본보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혁명군대를 선구자, 본보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과 전투력이 가장 강한 집단인 혁명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 중요부문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면서 전형단위, 본보기를 창조하게 하고 온 사회가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문제를 군대식으로, 전투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이다.

제2절. 인민적사업작풍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이 당의 품을 참다운 어머니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작풍은 사업과 대중을 대하는 일군들의 풍모와 태도를 말한다.

인민적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과 일군들의 사업기풍이며 정치도덕적풍모이다.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이 사업작풍을 바로세워야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전당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할수 있다.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일군들이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사업기풍과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높이 발휘할수록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게 된다.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일군들이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지니고 대중을 대할 때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더욱더 높아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인민적사업작풍은 대중령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혁명적사업기풍과 인민적인 품성을 담고있다.

인민적사업작풍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적사업기풍이다.

혁명적사업기풍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일해나가는 기풍이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운다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견결히 옹호하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집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투쟁기풍이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은 당과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하여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과 행복을 위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재부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기풍이다.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도 그 나라 인민에게 있다. 이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대중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투쟁기풍을 발휘하여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하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제낄수 있다.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이다.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은 모든 문제를 당적,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리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해나가는 사업기풍이다.

사업을 원칙적으로 한다는것은 당적,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한다는것이며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한다는것은 제기된 문제를 과장하거나 약화시킴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판단하고 처리한다는것이다.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신작칙의 기풍이다.

이신작칙의 기풍은 일군들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며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

기풍이다.

인민적사업작풍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인민적인 품성이다.

인민적인 품성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숭고한 품성이다.

인민적인 품성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어머니다운 품성이다.

어머니다운 품성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아주듯이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고상한 품성이다.

인민적인 품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 품성이다.

겸손성은 대중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대중을 존중하며 례절바르게 행동하는 품성이며 소박성은 군중이 생활하고 행동하는대로 평범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품성이다. 청렴결백성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며 정신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진실하며 대바르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품성이다.

인민적인 품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풍부한 인간성과 문화성이다.

인간성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따뜻이 대해주는 품성이며 문화성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고 사업하고 생활하는 품성이다.